

매직이 필요해

교육의향



정수연
전대사대부중 교사

아침에만 서너 잔의 커피를 들이켜야 겨우 정신을 차리고 집중해서 일을 할 수 있다면 조금은 지친 걸까? 라고 생각하게 된다. 교사들에게 6월은 3,4월의 분주함과 소란스러움이 지나 5월의 체육대회, 각종 계기교육과 학교 행사, 교육실습 등이 워낙 지루하게 지나간 후 평가 마무리와 이런 저런 일들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아이들 상담으로 조금은 지치는 때인것 같다. 그래서 이 맘 때가 되면 '방학은 언제 오나?'를 목을 빼고 기다리는 심정이 된다.

'공적인 생활의 과제는 두려움을 지배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고, 부부 생활의 과제는 지겨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라틴 아메리카의 소설가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가 소설 속 인물의 입을 빌려 말했다.

어쩌면 생의 각 단계를 살아가는 우리 각자는 참을 수 없는 생의 지겨움과 지루함을 이겨내기 위해 일탈도 마다하지 않는 것 같다. 마치 '안정이나 편안함' 보다는 '일탈과 도전, 파괴의 충동'이 원래부터 더 중요한 것이라도 되는 것처럼.

잇을만하면 터지는 여학생들의 관계의 문제를 본다. 서로 만나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은데, 부러 오해하려고 애를 쓰고, 악의적인 소문을 내고, 관계는 돌이킬 수 없어지고, 우리 학교의 경우 그나마 몇 안 되는 소수 여학생들 집단에서 파다하게 퍼지고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내동댕이쳐

야 일단락이 되는 경우가 더러 있다. "왜 그렇게까지 하는 거야?" 또는 "다른 사람의 일에 왜 그렇게 관여하는 거야? 마치 네가 재판관이라도 되는 것처럼 굴고 있잖아?" 또는 "다른 사람들 시선에 너무 신경쓰지 마. 너는 너의 삶을 살아가는 게 좋겠어." 라고 말해보지만 어쩔 수 없이 어쭙잖은 소리들이라는 것을 나도 알고 있다.

사실, 어른들도 잘 못하지 않나? 누구라도 어려워하지 않나?

어려서 배우지 못한 관계의 연습과 훈련은 자라면서 더 큰 상처를 만들면서 어른이 되어간다. '돌이킬 수 없는' 상처나 아픔을 남기지 않으면 다행이다.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 것들이 다가오는 순간들, 오히려 무력해지고 싶은 순간들이 오면 '마법', '마술', '매직'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 주문이라도 외워서 키라도 커지고 싶고, '딩크숏 한 번 할 수 있다면' 큰 소리로 외치고 싶다.

문학의 사조 중에서도 비극적이고 암울한 현실의 이야기를 환상적으로 서술하는 '마술적 리얼리즘'이라는 게 있다. 대표적으로 [양철북]의 작가 권타 그라스와 [콜레라 시대의 사랑], [백년 동안의 고독]을 쓴 마르케스가 있다. 아내의 죽음을 알리기 위해 피가 흘러 멀리 있는 그녀의 남편에게까지 흘러갔다든지 하는 비현실적인 상황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서술된다. 글 속의 인물들은 그런 상황들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들인다. 이미 오래 전에 죽은 인물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서술한다. '그는 여러 해 동안 죽어서 지내려니까 살아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이 너무나 강해졌고, 참을 수 없을 만큼 말동무가 필요했으며, 죽은 사람들하고만 함께 살자니 죽음이 더욱 소름끼치는 것 같아서, 결국 미워하던 원

수를 사랑하게 되었노라고 긴 얘기를 늘어놓았다.'

그런데 이러한 마술적 리얼리즘은 주로 억압적이고 권위적인 정치 현실이나 슬픈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어쩌면 현실의 고통을 '마법'과 '환상' 요소를 이용하여 객관화, 거리화 시키려는 정치한 기법일 수 있다.

상담 기법 중에 매직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마술에 의해 확신을 얻도록 하는 기법인데 '현실에서 고통을 받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노력 끝에 성공' 등을 믿게 함으로써 현재의 고통을 잊게 하는 것이다.

기적질문이라는 기법도 있다. 문제 상황에 너무 빠져 있으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데 착안을 둔 방법인데 기적상황을 제시하여 문제가 완전히 사라진 상황을 상상하게 함으로써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개념이다.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조금 이상한 질문을 하나 할게.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봐.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후에 집으로 돌아가서 밤이 되면 잠을 자겠지? 만약 네가 밤에 잠든 사이에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해봐. 그 기적은 네가 여기에 오도록 만든 그 문제가 해결된 거야. 상담 받으러 온 너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지. 단지 너는 자고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모를 뿐이야. 자, 그러면 아침에 깨어난 후에 이런 기적이 일어나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을까?'

우리들 각자의 삶에도 기적 질문을 던져보는 건 어떨까?

'우리가 가진 삶의 문제가 오늘 밤 자고 일어나면 깨끗하게 해결될 거야. 이 기적이 더 자주 일어나려면 당신은,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社說

전두환 비자금 환수, 이제 국회가 나서야

'전두환 3법' 통과 국민청원

전두환 사망 후 거둬들이지 못한 추징금 환수를 위해 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전두환 씨가 납부하지 않은 추징금을 강제 추징하기 위한 '전두환 추징 3법'을 통과시키라는 것이 골자다. 17일에는 5·18민주화운동 단체들이 전씨의 추징금 환수를 위한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과 국회의 힘이 모아져 전 씨 일가의 미납추징금이 환수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1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전두환 비자금 추징 3법 통과 촉구 국민청원'이라는 청원 글이 게시됐다. 최근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전씨의 숨겨둔 비자금을 폭로하면서 드러난 전씨 일가의 은닉 재산을 환수할 수 있도록 발의된 형사소송법·형법, 공무원 범죄 몰수 특례법 등 '전두환 추징 3법'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는 것이다. 앞서 대법원은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205억 원의 추징금을 선고했지

만,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약 1283억 원에 불과하다. 추가로 추징해야 하는 922억여 원은 2021년 11월 전씨가 사망하면서 환수마저 어려워졌다.

전두환의 손자 전우원 씨가 폭로한 전 씨 일가의 비자금은 상상을 초월한다. 전우원 씨는 자신도 비자금을 평평 썼고 아버지와 삼촌들은 거액의 비자금이 들어간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다. 돈 세탁과 탈세에 대한 의혹들도 신빙성이 높다. 일반인은 상상도 못할 금액을 손자들에 송금하고 연회동 자택에는 숨겨진 금고도 있다고 한다.

전두환은 사망했지만 일가가 숨겨둔 비자금을 언제까지 의혹으로 놔둘 수는 없다. 전두환 비자금은 그 자체로도 범죤다. 당장은 내달 12일 마감되는 국회 국민청원에 5만 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청원과 별개로 국회가 적극 나서 비자금을 환수할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29만 원'으로 국민을 조롱하고 지금까지 호화 생활을 영위해 온 전 씨 일가를 단죄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없는 일이다.

천일염 사재기 국민불안이 원인 아닌가

'원전 오염수 방류' 일파만파

최근 천일염 판매량이 이례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지역 대형 마트에 따르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90% 증가했다. 품귀 현상까지 이어 소금값도 상승했다. 신안수협 직매장은 최근 2021년산 신안 천일염 1포대(20kg) 가격을 2만5000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한다고 공지했다. 천일염 최대 생산지인 신안 천일염 업체들은 주문량 폭주를 못 따라가 물량 부족에 밤낮으로 생산에 나서고 있다.

평균 대비 수요가 4배 이상 늘어 생산 라인이 감당하지 못해 2.5배 정도 더 생산하고 있는데도 생산·가동 시간도 주 52시간을 가득 채워야 할 정도로 수요가 급증했다. 아울러 소금 업체와 연결된 택배사도 남는 차가 없어서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 일부 업체는 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따르자 '온라인 판매'를 중단했다. 누가 봐도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유는 국민 대부분이 알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때문이다. 일본 때문에 소금이 방사능에 오염된다는

불안감이 급증하면서 발생한 현상이다.

정부는 이런 움직임에 두고 '사재기가 아니다'라고 말한다. 정부 관계자는 "여러 차례 현장을 확인한 결과가 공업계나 유통업계 차원에서 발생하는 천일염 사재기 징후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위의 이상 현상은 천일염 생산이 줄어들 테다 개인 직거래가 다소 증가했기 때문으로 해석했다. 국민의 우려가 지나치다는 것도 정부의 판단인 것 같다.

이 무슨 눈가리고 아웅이란 말인가. 현지 천일염 업체가 주문량을 못 쫓아가고, 사람들은 마트 마다 소금이 언제 들어오냐고 묻고 있다. 나아가 천일염 업자 또한 판매량 급증이 기쁜 표정이 아니다. 마치 회광반조를 보는 눈이다. 이러다가 일본의 방류가 시작되면 전국이 소금으로 아우성 칠 것 같은데도 정부는 '이상 없다'고만 한다. 이 말이 거짓일지 아닐지는 얼마 가지 않아 밝혀질 것이다. 그때는 뭐라고 할 것인가. 국민들이 갑자기 소금 섭취량이 늘어서라고 할 것인가. 당신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공무원들인가.



사진으로 보는 세상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17일 오후 대구 동대구역 앞 버스정류장에서 시민들이 쿨링포그로 더위를 식히며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대구=뉴시스

서석대



엘니뇨는 스페인어로 '남자 아이' 혹은 '아기 예수'를 뜻한다. 적도 부근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이상 높은 상황이 5개월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하며, 보통 2-7년 주기로 나타난다. 엘니뇨 현상은 페루 해안가의 어부들에 의해 처음 관찰됐는데, 크리스마스 전후로 한류가 난류로 바뀌는 것을 알게 됐고, 이때 발생한 난류를 '아기 예수' 탄생 시기에 맞춰 이름을 붙였다는 설이 있다.

엘니뇨는 지역과 계절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다르지만, 지구의 기온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엘니뇨는 지난 1951년 이후 모두 23차례 발생했는데 역대 가장 더운 해로 기록됐던 2016년에는 해수면 온도가 1.5도 이상 상승한 '슈퍼 엘니뇨' 현상이 나타나 전 세계 곳곳에 피해를 입혔다.

엘니뇨의 반대 현상은 '라니냐'로 '여자 아이'를 뜻한다. 엘니뇨와 라니냐는 서로 번갈아가며 발생하면서 지구의 에너지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지구 온난화로 인해 지금은 폭염과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를 야기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3년은 라니냐가 이어졌는데, 올해는 엘니뇨가 찾아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세계기상기구(WMO)는 올해 엘니뇨의 발달이 기록적인 폭염으로 이어져 전 세계에 위험한 상황이 닥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17일 광주·전남지역에 올 들어 첫 폭염특보인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다. 폭염주의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이제 6월 중순인데 벌써 30도가 훌쩍 넘는 무더위가 찾아왔다. 본격적인 여름철인 7월과 8월에 이어질

극한 더위를 어떻게 넘길지 걱정이다. 해를 거듭할 수록 지구의 기후변화가 심상치 않다. 기후변화는 이제 인류의 생존 문제와 직결되는 상황에 이르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더욱 절실해졌다. 당장은 올 여름 사상 최강의 엘니뇨가 예상되는 만큼 정부와 각 지자체는 폭염과 태풍, 집중호우 등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 철저하게 대비해 안전하고 피해 없이 여름을 났으면 하는 바람이다.

최권범 경제부장 겸 뉴스콘텐츠부장

全南日報	사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94
정치부	(062)510-0461	전남취재부	(062)510-0336
사회부	(062)510-0340	뉴스콘텐츠부	(062)510-0321
경제부	(062)510-0380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구독료 월 1만원 1부 5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